

4·29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선 주요 후보 동행취재... 새누리당 정승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승 후보가 20일 광주 서구 매월동 공구유통상가 앞 도로에서 빗 속 유세를 펼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정승 “1년만 써 보라” 빗속 유세

“정치꾼 아닌 참된 지역 일꾼 뽑아달라”
서구 풍암동 공구상가 돌며 지지 호소
하루 4시간 수면 강행군 속 ‘표밭갈이’

20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공구유통상가. 오후 들어 빗줄기가 거세진 탓에 상가 주변은 썰렁했다.

적막한 분위기를 뚫고 어디선가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참된 지역 일꾼, 1년만 써보십시오. 뽑아서 원 없이 부러먹으십시오.” 광주 서구 을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정승 후보가 빗속 유세를 펼치고 있었다.

“대통령 선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정권교체’ ‘호남정치 복원’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정치꾼에 휘말리지 마시고, 서구 살리고, 광주 살리는 지역 일꾼인 저에게 힘을 보내주세요.”

정 후보의 간절한 호소가 빗속을 뚫고 공구 상가 내에 울려 퍼지자 공금한 듯 상인들 몇명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정 후보의 유세를 경청했다. 10여 분간의 유세가 끝나자 정 후보는 굵어진 빗줄기 속에도 아랑곳 없이 상가를 돌며 상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상인 정모(65)씨가 “꼭 할 말이 있다.”면서 정 후보의 옷깃을 잡았다. “국회의원 당선되면 ‘함흥차사’고, 선거때만 되면 표 달라고 하는 그런 정치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는 “저는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정치꾼을 뽑으면 안됩니다. 지역주민 애환을 달래주고 현안 사항 챙기는 지역 일꾼을 뽑아 주십시오.” 라고 읊소했다.

정 후보는 자리를 옮겨 매월동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후보는 상인들의 현안문제인 공구유통상가 주차장 부지 확대와 농산물

시장 채소등 및 주차장 확충, 도로 확장 등을 약속했다.

“여당에서 저를 최고위원 시켜주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도 시켜준다고 약속한 만큼 반드시 예산을 쟁겨서 서구 발전, 매월동 발전을 앞당기겠다.” 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날 새벽 5시에 기상한 뒤 오전 7시 방송사 출연을 시작으로 14개의 일정을 소화했다.

서창동에서 금호동, 매월동, 쌍촌동, 풍암동, 금호동으로 이어지는 강행군이었다.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는 밤 11시부터 풍암동과 금호동 편의점을 방문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과의 면담을 가졌다.

하루 4시간 정도 수면을 하고 있다는 정 후보는 “주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1분 1초가 아깝다”면서 “1년만 기회를 준다면 정치꾼이 아닌 지역 일꾼으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일만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성남 찍고 이틀만에 또 광주로... 새정치 문재인 ‘텃밭 사수’ 총력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0일 다시 야당의 심장부인 광주 서울을 찾아 텃밭 지키기에 안간힘을 썼다.

이날 오후 늦게 광주에 도착한 문 대표는 조영택 후보와 함께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비닐 우의와 운동화 차림으로 거리에 나가 밤 늦게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조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문 대표는 광주에서 1박하고 21일 오전까지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문 후보는 선거운동 중간 기자회견과 만나 “광주는 정말 중요하다”면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추격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제 거의 근접하거나 역전하지 않

았겠는가”라고 말했다.

문 대표의 이번 방문은 선거전이 본격화한 최근 한달 사이 다섯 번째, 그만큼 텃밭 수성에 비상이 걸렸음을 반증한다는 분석이다.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를 빼앗길 경우 문 대표의 리더십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문 대표로서는 다급한 처지다.

이 때문에 당분간 문 대표는 수도권 선거지역 3곳을 한번 돌고나면 광주를 꼭 찾는 등 선거지역의 상당 부분을 광주에 할애하고 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세월이시 유세 대신 최순환의 수행원만 데리고 구석구석을 훑는 낮은 행보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여전히 새정치연합에 대해 호남 정서가 굳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낮은 자세로 다가간다는 취지”라며 “세월이 나설 경우 자칫 천 의원에 대한 동정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전 성남 중원 지역에 총집결, 현장 최고위 및 복지관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새정치연합은 성완중 파문에 따른 ‘부패 정권 심판론’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겨냥한 ‘경제정당론’을 동시에 내세워 수도권 민심을 공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권교체 위해선 광주시민 선택 중요”

박영선 전 원내대표, 서구를 조영택 후보 지원 나서

박영선(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보수정권, 부패정권을 심판해야하는 선거인 만큼 광주시민들의 선택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조영택 새정치민주연합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광주에 내려온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실망하신 광주시민들의 마음이 복잡하겠지만, 어쨌든 정권교체를 위해서라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광주시민들의 선택

은 항상 중요한 때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광주시민들이 의미 있는 선택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최근 개봉된 호남고속철도를 타고 광주에 내려오면서 감회가 새로웠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 이어 정권을 우리가 잡았다면 호남고속철도도 이미 개통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왔다”면서 “호남소외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겠다는 각오를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최근 자신이 주장한 경선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못한다면 당은 생명을 잃어 가게 된다”면서 “실상 19대 총선 공천 실패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재인 대표는 경선 오픈프라이머리에 동의하지만, 당 지도부는 별로 호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공천제도가 문제가 있었던 만큼 공천 민주화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4·29재보선 투표소 확정 광주 서울 34곳 등 309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4·29 재보궐선거 투표소 309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투표소의 위치는 투표안내문과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선거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내 투표소 찾기’ 코너, 선관위 대표전화(☎1390)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 서구를 선거구 투표소는 상무2동 시영종합사회복지관 등 34곳이며, 사전투표소는 상무2동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7곳이다. 사전투표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돕기 위해 선거 당일에 장애인 이동 차량과 보조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

우윤근, 경찰 세월호 추모행사 대응 비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 서울 도심 세월호 추모 행사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20일 “추모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폭력진압에 대해 모든 국민이 절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성남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족 행진을 가로막는 경찰의 행태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다. 권력의 시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또한 “상주인 유가족을 가로막고 희생자와 실종자에 한화하려는 국민의 발걸음을 막은 경찰의 몰상식하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재차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성완중 리스트’ 파문에 대해 “이번 주는 국회 법사위를 시작으로 안행위와 운영위를 소집해 소위 ‘진박 게이트’를 철저히 따질 계획”이라며 “내일은 의총을 열어 총리 해임결의안에 대한 최종의견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에서는 법무장관을 불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안행위는 부산·인천시장, 경남지사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운영위에는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를 불러 비리 의혹을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햇살론대출
- 임대보증금대출
- 정부정책자금대출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